

哲學에 關한 問題의 二三

李鳳植

一, 自然-物質-과 精神

精神이 自然에 對하여 如何한 關係를 가졌느냐 하는 問題는 哲學 上의 根本 問題이다. 이것은 過去로부터 오늘까지의 數多한 哲學者가 論爭하는 問題의 焦點이나, 精神과 自然 中에 어느 것이 本源的이나 하는 問題의 解答에 依하여 哲學者는 二大 陣營으로 分裂되는 것이다. 卽 前者를 本源的이라고 主張하는 者는 觀念論의 陣營을 備하고 그 反對로 后者를 本源으로 보는 사람은 唯物論의 流波에 屬하는 것이다.

모든 流派의 哲學은 觀念論이나 唯物의 어느 것에든지 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實在와 思惟와의 關係 問題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勿論 兩者의 中間을 彷徨하는 二元論, 折衷論이 잇스나, 그것은 哲學으로서의 正統的이 아닌 것이다.

唯物論의 基礎的 前提는 外部世界의 承認이며, 物質이 吾人의 意識外에 獨立的으로 存在한다는 것을 承認하는 것이다.

實在 그것은 實在의 表象과는 다른 것이며, 그것과는 無關係하게 存在하다. 그 自體로서의 實在의 外的 世界는 吾人의 意識과 無關係로 存在한 것이다. 自然이 人間 以前부터 存在하였다는 것은 自然科學 上의 움직일 수 업는 眞理가 아니냐.

物質이 本源的이나 그것은 思惟 外에 獨立的으로 存在한 客觀的 存在이지 만, 物質에서 獨立한 精神의 先世界的 存在라는 것은 업다. 精神도 亦是 高度로 發達한 物質, 卽 物質의 最高 所產物이다. 「吾人의 意識을 思惟가 一物質的, 肉體的 器官인 頭腦의 所產」이니까. 그리고 一 個人에게 잇서서 主觀的으로는 純精神的, 唯物質的, 非感覺的인 것일지라도 客觀的으로는 物質的, 感覺的인 것이다. 人間은 全體인 同時에 客體임으로써이다.

唯物論에 反對하는 모든 流派의 觀念論은 精神의 先世界的 存在를 假定한다. 이것이야말로 超世界的 創造主에 對한 信仰의 空想的 產物이니, 저들 哲

學的 觀念論이 神을 世界의 端緒로 보는 神學과 不可離의 關係를 가졌슴 [이]이 또한 偶然이 아니다.

觀念論者의 말과 갖치 吾人의 認識이 「我」로부터 즉 「主體」로부터 出發할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그들의 我라는 것은 何等의 存在가 업는 我이며, 다만 思惟되었을 뿐인 我이다. 觀念論者의 말하는 我에게는 「客體 一般도 存在치 안하고 「汝」도 存在치 안다.」 要컨대 觀念論者는 對象世界의 客觀的 獨立性을 抹殺하는 것이다.

觀念論에 잇서서는 主體가 업시는 客體가 업스며, 自我가 업스면 世界가 存在치 못한다. 實로 그들은 그들이 「兩親에게서 生한 것이 아니라 도리혀 兩親이 그들에게서 生」하였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다. 그들의 「兩親의 實在도 그들의 智覺에 잇서서의 實在로 還元되니까.」

「人間 存在 條件이 업섯을 쟈 自然 卽 地球가 아직 人間의 眼目과 意識의 題目이 아니엇든 當時, 自然은 絶對的으로 非人間的 實體이였다.」 그러나 觀念論은 이것에 對하여 反對한다. 「그 自然은 思惟된 自然이라」고. 그것치만 「自然이엇던 期間에 巨하여 現實的으로 存在치 안엇다.」고 말할 수는 업섯 것이다. 「내가 쏘크라테스와 프라톤을 思惟치 안는 경우에 그들이 나에게는 存在치 안엇다고 해서, 쏘크라테스와 프라톤이 나 업시는 存在치 안엇섯다.」고 主張할 수는 업는 쟈문에. 要컨대 人間이 腦髓 업시 思考한다고 主張하는 觀念論의 迷妄은 自然과 歷史에 對한 人間의 正確한 認識을 妨害하는 者이다.

二, 思惟와 實在와의 自同性 問題

思惟와 實在와의 關係는 上述한 精神과 實在의 어느 것이 本源이나 하는 것 外에 쏘한 問題가 있다. 그것은 周圍의 世界에 關한 吾人의 思想이 世界 自體에 對하여 如何한 關係가 잇느냐? 吾人의 思惟는 實在的 世界를 認識할 能力이 잇느냐? 하는 問題인데, 이것을 思惟와 實在와의 自同性 問題라고 한다.

觀念論者의 多數는 이것에 肯定的 對答을 하나니 그들에게는 世界가 곳 思想의 實現 그것인 싸답이다. 이 問題에 對하여 唯物論은 觀念論者와 全然 다른 意味로서 肯定的 答을 한다.

吾人은 感性을 通하여 事物을 把握한다. 唯物論은 第一로 物質을 最初의 所與로 認하고, 第二로는 物質의 基底에 人間의 感覺과 一致하는 同種的, 同質的 能力이 含有되어 잇슴을 承認한다. 客體는 내게 잇서서 感性의 對象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基礎이다. 卽 「實在는 主語이요, 思惟는 客語이지만, 後

者는 主語의 實體를 含有한 바의 客語이다。」

思惟와 實在와의 自同性 問題는 唯物論에 依하여서는 說明할 수 있다. 感覺과 思惟와는 同一한 根源을 가지고 同一한 發展의 相異한 段階를 表現하는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 問題에 關하여 徹底한 解答을 與하였다. 卽 그들은 이 問題를 窮極적으로 說明하는 것은 實踐 卽 實驗과 産業임을 究明하였다. 人間을 圍繞한 感性世界는 人肉의 實踐 卽 産業과 社會狀態와의 產物에 不過한 것이다. 人間과 自然과의 統一性 또는 思惟와 實在와의 自同性은 哲學에 依하지 安터라도 이미 産業에서 證明되야 잇는 것이다.

三, 物自體와 現象

吾人의 「現象」을 認識할 수 잇스나 「物自體」는 認識키 不能한 것이니, 오직 信仰을 通하여서라야 이것에 接近할 수 잇다고 칸트는 說明하였다. 그는 信仰主義에 墮落하여 人間 自身을 侮辱한 것이다.

勿論 吾人의 知覺에 眼界가 잇서서 完全히 外部世界와 一致할 수 업는 것이니까 對象과 知意과를 數量的으로 同一하다고 할 수는 업다. 그리고 物自體와 現象과는 數量的으로나 內容적으로 完全한 同一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物自體를 認識치 못한다는 칸트說을 容認할 수는 업다. 物自體와 現象 間에는 何等 本質的 差異는 업는 것이며, 그것은 다만 既知와 來知와의 差違 뿐이다. 元來 物自體라는 것은 吾人의 外部에 存在한 것이며, 認識 可能한 것이다. 萬一 物自體가 現象과 다르다면 後者가 前者의 一部 乃至 一面 임으로써이다. 그럼으로 兩者 間에 何等의 原則적으로 다른 것은 업다. 無知로부터 知識이 生成하야 完全치 못한 知識은 漸次로 完全하게 되는 것이다. 人間의 認識能力에는 絶對的인 限界가 업스며 相對的, 可能的, 歷史的 限界가 잇슬 뿐임으로써이다.

現象의 基礎에는 物自體가 있다. 그러나 吾人의 말하는 物自體는 認識의 對象할 수 잇는 實在的 客體이요, 칸트가 말하는 現實性 업는 抽象物 超絶的인 認識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事物 個個의 具體的 性質을 다 안다면 物自體를 안 새음이다。」라고 헤겔은 말하였다. 그런데 이 物自體를 認識하는 基準은 實踐이다. 實로 人間性의 實踐은 日常生活裡에서 「物自體」를 「現象」으로 變하고 잇다. 卽, 認識되지 안하였든 것을 認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物自體와 現象 間에 差異를 設定하는 것은 無益한 哲學的 謔言에 不過한 것이다.

四, 必然과 自由

唯物論者는 物質이 客觀的으로 存在하는 것이요, 그 存在形式이 時間과 空間의 內部에 있어서의 運動이며, 그리하여 그 運動이 因果的으로 合法則法으로 必然的으로 行하여 진다는 것을 確信한다. 그러나 觀念論者에 依하면 因果性도 意識의 主觀的 形式이라고 하는 것이 되나니, 原因과 結果 間에 客觀的 必然的 連絡이 없다면, 原因이 結果 後에 오며 時間이 逆行할 수 있게 되는 矛盾에 陷하는 것이다.

「必然性은 認識되지 않는 限에 있어서 盲迫」이라고 헤겔은 말하였다. 自由라는 것은 必然性的 認識이다. 意思의 自由라는 것은 事物에 關한 智識에 依하여 事物을 解決하며 支配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함이다. 사람은 必然性을 認識하고 此에 服從함에 依하여 自由로워지며 自然에 對한 支配者가 된다.

人間의 眞正한 自由, 眞正한 向上은 唯物論的 見地에서라야 獲得할 수 있다. 吾人의 外部에서 獨立하여 活動하고 있는 法則을 認識하는 根本 過程도 亦是 實踐을 通하는 것이다. 人間의 實踐 過程에 있어서 自然 現象의 「過程은 人間의 頭腦에 客觀的으로 眞實히 反映하며, 그리하여 人間은 自然에 對한 支配者가 되는 것이다.」

物自體의 認識을 不可能하다 하며 헛된 「意思의 自由」을 妄想하는 것은 人間의 眞實한 進歩를 妨害하는 것이다.

五, 抽象과 具體

事物의 存在形態는 恒常 具體的이요, 特殊的이며 個體的이다. 그럼으로 具體에서 抽象을 特殊에서 普通을 導出하는 것이 事物의 客觀的 實在性, 現實性, 眞理性을 把握하는 唯一한 方法이다. 그런데 觀念論者는 그와 反對로 普通을 特殊에 抽象을 具體에 先行식이다. 그들은 普通, 抽象을 自然의 根本的 本體로 보며 普通에서 特殊로 抽象에서 具體로 내려간다. 따라서 그들은 思想을 對象으로부터 抽象하는 것이 아니요, 思惟된 對象을 原因으로 보나니, 이것은 事物에 關한 思想에서 事物 自體를 引出할야고 하는 것이며, 無에서 現實을 造할야고 하는 것이다.

抽象한다 함은 自然의 本質을 自然의 外部에 人間의 本質을 人間의 外部에 思惟의 本質을 思惟의 外部에 置함을 意味함이다. 思惟와 實在의 統一을 破壞하는 것은 實로 觀念論者의 抽象이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無智에서 智에 具體에서 抽象에 特殊에서 普通으로, 이것이 人間 認識의 人間 生活의 法則이 아니냐.

觀念論者는 世界의 現象 中에 交互 作用하는 無數한 原因을 代하여 一個

原因, 一個 本體, 一個 名稱을 與한다. 따라서 그들은 必然的으로 世界의 本源者 또는 第一 原因인 神이라는 것을 造出하게 된다. 「神이 없으면 世界는 說明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神이 있으면 世界는 說明할 수 없게 된다.」이 眞正하다.

現在的 自然은 神이 없어도 哲學과 神學이 없어도 客觀的으로 實在하야 있다. 哲學의 任務는 事物을 잇는 그대로 그 現實性에서 把握하는 것이다. 唯物論은 世界의 目的論的 說明에 轉形하야 人間을 偏見에 束縛하고, 眞正한 自由의 獲得을 妨害하는 모든 觀念論의 虛僞를 排除하야, 人間으로 하야금 眞正한 人間性에 서게 하며, 眞正한 人間 文化의 創造를 目的하는 것이다. (六一頁에서) 係와 갖다. 例하면 人間으로서 母胎 內의 二百八十日의 胎兒生活은 個體 發生 中에서도 가장 變化가 만흔 새다. 이것을 再演律노셔 이 二百八十日이 人類 進化系統史의 千萬年의 縮寫라고 말한다. (엇잔지 고양이의 三日이 人間의 一年에 相當하다는 非科學的 印象을 맞지마는). 그러라면 胎兒生活을 高速撮影으로 特別한 緩速映寫를 行하면 그것이 系統 發生史가 될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微細한 點까지 個體 發生을 寸分 들니지 안케 再演하는 것은 안니다. 이 點에서 自然은 映畫製作者와 갖지는 안타. 그러나 自然은 마치 亂暴한 撮影技師가 핸들의 두루는 法을 變해서 필름의 進行速度를 變하는 것 갖흔 짓을 한다. 小兒病은 技師가 핸들 廻轉의 손을 멈춘 것과 갖치 언제까지든지 同一한 것만 映寫함으로 畫面은 조금도 展開되지 안는다. 키네마의 普通 필름은 세루로이드製인 고로 廻轉이 오래 停止되면 쓰거워져서 마침내 火災가 나게 된다. 小兒病도 社會的 範圍가 없으면 매우 危險이 生한다.

—繼續—